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한국 사회자본, 나를 넘어 공동체로

목 차

■ 한국 사회자본, ‘나’를 넘어 ‘공동체’로
: 공동체의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Executive Summary	i
1. 사회자본 확충의 필요성	1
2. 공동체의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2
3. 시사점	11
【HRI 경제 통계】	12

□ 나를 넘어 공동체로 - 공동체의식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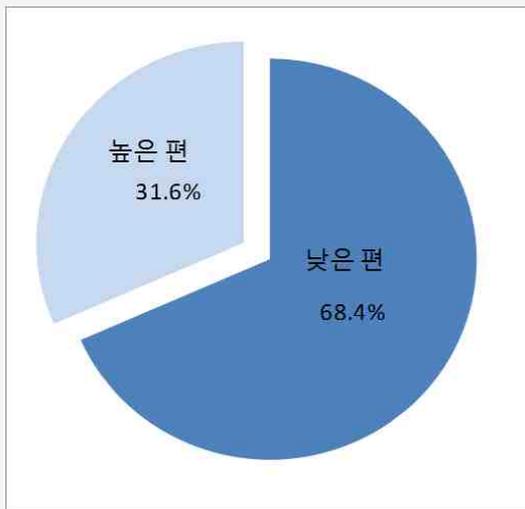
1. 공동체의식 회복의 필요성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 등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OECD 32개 국가 중 29위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 구성 요소 중 공동체 내의 타인에 대한 신뢰, 배려 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 공동체의식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동체 회복 방안과 사회자본 확충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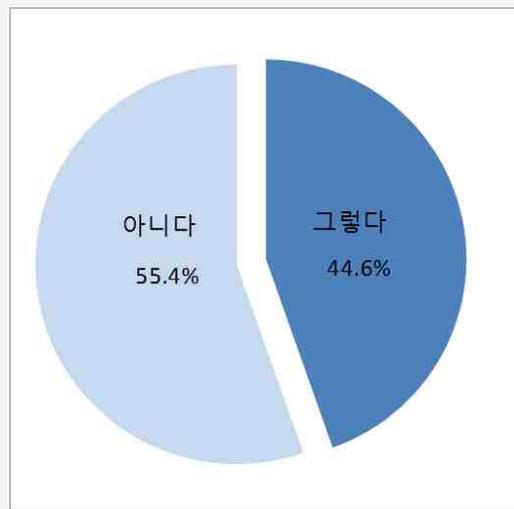
2. 공동체의식 관련 인식 조사 결과

(공동체 의식 수준) 첫째, 국민 10명 중 7명 정도(68.4%)는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공동체의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동체 참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53.5%에 이른다. 둘째, 공동체를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휴지를 줄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55.4%이다. 휴지 줄기는 작은 행위에 불과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로, 한 사회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때 심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 수준>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휴지 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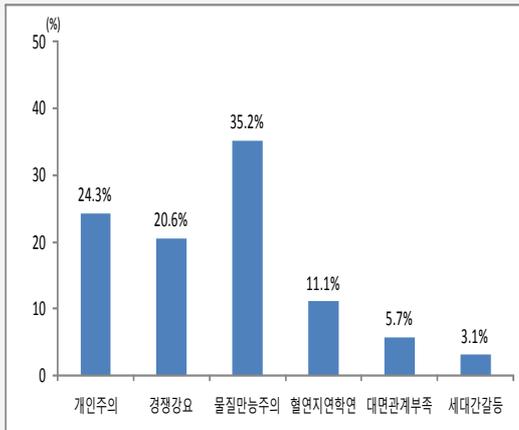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7월 조사

(공동체 해체이유와 특징) 첫째, 공동체가 해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만능주의 문화(35.2%)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인주의 문화’ 24.3%, ‘지나친 경쟁 강요’ 20.6%, ‘혈연, 지연, 학연 중심 문화’ 11.1%, ‘진솔한 대화 등 대면관계 부족’ 5.7%, ‘세대간 갈등’ 3.1% 순이었다. 둘째, 사적인 친목 공동체 참여는 많지만, 공적 공동체 참여는 미흡하였다. 사적 공동체인 학연지연단체, 운동 등 친목 공동체의 참여는 약 65% 정도인 반면, 시민단체나 정당단체 등 공적 공동체 참여는 2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편이지만, 국가 위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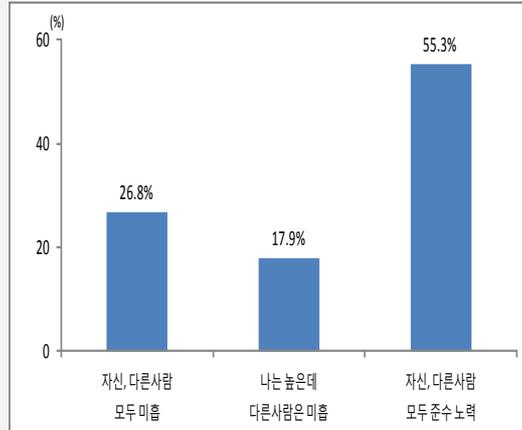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67.3%)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돕고자하는 자원 봉사나 기부 활동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국민 과반수 이상(58.3%)은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회복 방안) 첫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실시(44.2%)가 필요하다. 그 외에, '물질이 아닌 사람 중심의 캠페인 실시'가 29.0%, '세대간, 집단간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자리 마련'이 23.7%, '다문화, 타종교 등의 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가 3.1%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인식을 공동체 내 사적 관계로 전이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4.9%)은 국가가 잘살아야 나도 행복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인식시키더라도 공동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다. **셋째, 국민 과반 이상(55.3%)이 준법정신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 과반 이상의 국민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높은 준법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런 사실이 널리 공유되면 향후 개개인이 준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속 효과도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공동체 해체 이유>



<준법의식 수준(타인과 비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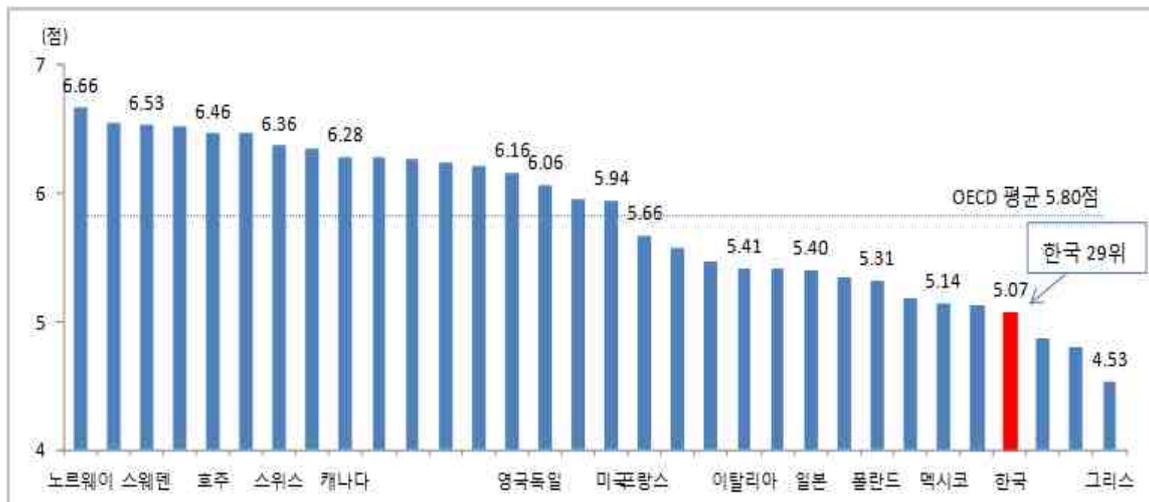
3. 시사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공동체의식 회복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사람 중심의 쟁이 아닌 협력 문화를 사회 전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의 사적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준법정신 등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높아진 인식을 널리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1. 공동체의식 회복의 필요성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확충 등 경제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OECD 32개 국가¹⁾ 중 29위에 불과함
 - 한국 사회자본지수는 5.07점으로 OECD 32개국 내 평균 점수 5.80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본 구성 요소 중 공동체 내의 타인에 대한 신뢰, 배려 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 공동체의식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최근 진행되는 국가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도 단순히 정부시스템 혁신을 넘어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체의식 회복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과 특징을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동체 회복 방안과 사회자본 확충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OECD 주요국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4.6),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1) OECD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 터키는 데이터 부재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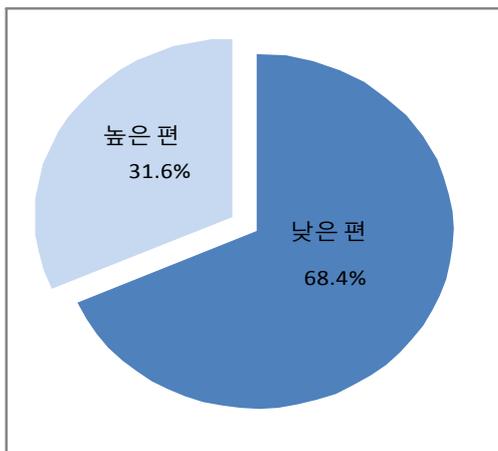
2.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²⁾

(1) 공동체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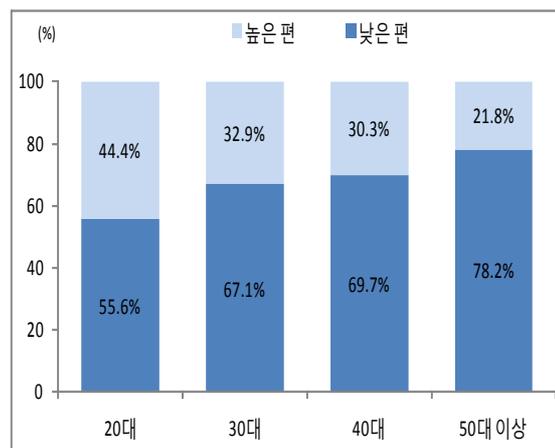
○ 공동체 의식 수준 낮다는 의견 68.4%

-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8.4%의 사람들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함
 - 공동체 의식이란 공동체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는 갖추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됨
- (연령별 비교) 연령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대는 55.6%, 30대는 67.1%, 40대는 69.7%, 50대 이상은 78.2%가 우리나라 공동체의식 수준을 낮다고 인식함

<우리나라 공동체 의식 수준>



<공동체 의식 수준(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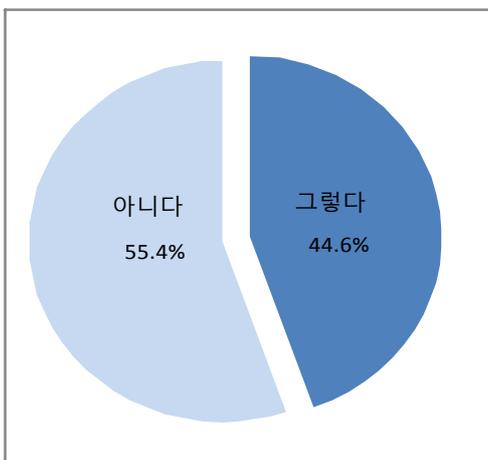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4년 7월 조사.

2) ‘공동체와 사회자본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 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최대 오차 범위는 95%신뢰수준에서 ±3.4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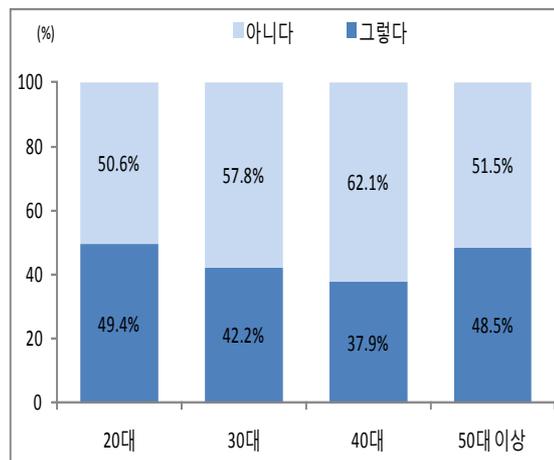
○ 과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휴지줍지 않는다고 인식

- 국민 과반수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55.4%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응답함
 - 휴지 줍기는 작은 행위에 불과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로, 한 사회의 공동체 의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음
- (연령별 비교) 30대와 40대가 20대와 50대 이상에 비해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휴지 줍기에 대해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함
 - 20대(49.4%)와 50대 이상(48.5%)의 경우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울 것이라는 의견이 과반수에 가까움
 - 반면, 30대는 42.2%, 40대는 37.9%로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울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임
 - 20대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자발적으로 휴지를 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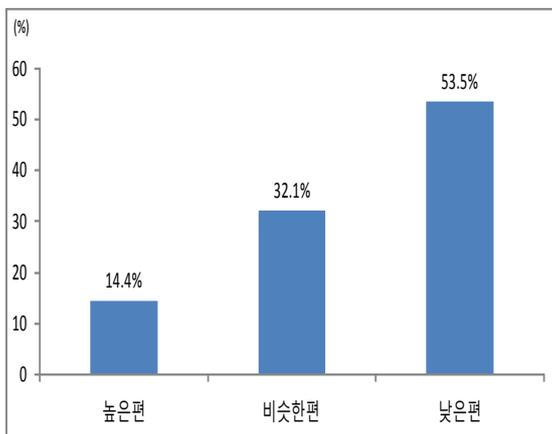
<자발적으로 휴지를 줍는다(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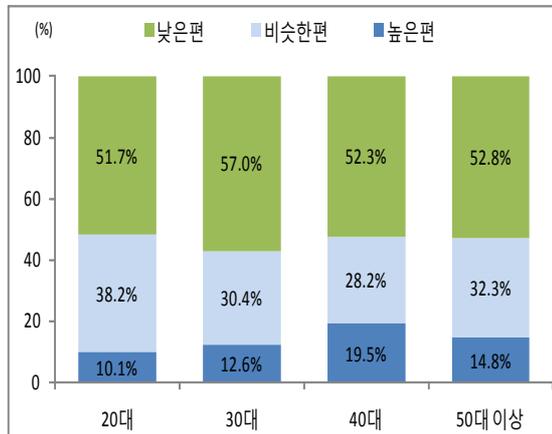
○ 공동체 참여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고 인식

-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수준 역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모임이나 단체 등 공동체 참여 수준이 서구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높은 편 14.4%, 비슷한 편 32.1%, 낮은 편 53.5%이라고 응답함
 -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 수준만 낮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참여 수준 역시 낮게 평가되어 공동체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 비교) 연령별로는 30대가 공동체 참여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 참여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10.1%, 30대 12.6%, 50대 이상 14.8%, 40대 19.5%로 40대가 가장 높음
 - 공동체 참여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51.7%, 40대 52.3%, 50대 이상 52.8%, 30대 57.0%로 30대가 가장 높음
- (지역별 비교)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참여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편임
 - 서울의 경우 높은 편 10.8% 낮은 편 59.3%인 반면, 지방의 경우 높은 편 15.3% 낮은 편 52.0%로 나타남

<공동체 참여 수준(서구와 비교)>



<공동체 참여 수준(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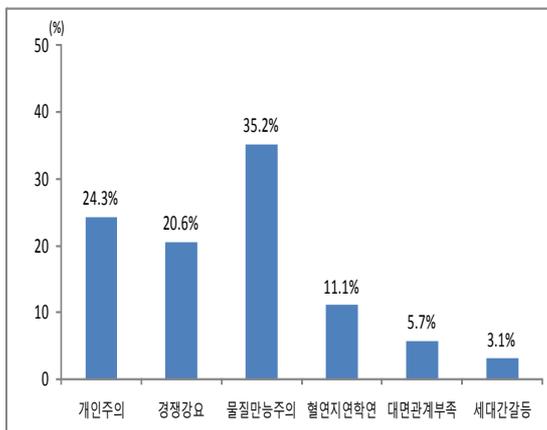


(2) 공동체 해체 이유 및 공동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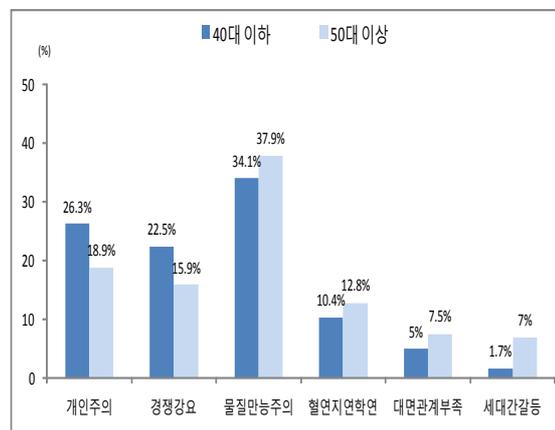
○ 공동체 해체는 물질만능주의가 가장 큰 이유

-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만능주의 문화때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5.2%가 ‘돈 중심의 물질만능주의’라고 응답함
 - 그외에 ‘개인주의 문화’ 24.3%, ‘지나친 경쟁 강요’ 20.6%, ‘혈연, 지연, 학연 중심 문화’ 11.1%, ‘진솔한 대화 등 대면관계 부족’ 5.7%, ‘세대간 갈등’ 3.1%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비교) 40대 이하나 50대 이상 모두 물질만능주의 문화를 공동체의 가장 큰 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40대 이하는 ‘돈 중심의 물질만능주의’ 34.1%, ‘개인주의 문화’ 26.3%, ‘지나친 경쟁 강요’ 22.5%, ‘혈연, 지연, 학연 중심 문화’ 10.4%, ‘진솔한 대화 등 대면관계 부족’ 5.0%, ‘세대간 갈등’ 1.7% 순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은 ‘돈 중심의 물질만능주의’ 37.9%, ‘개인주의 문화’ 18.9%, ‘지나친 경쟁 강요’ 15.9%, ‘혈연, 지연, 학연 중심 문화’ 12.8%, ‘진솔한 대화 등 대면관계 부족’ 7.5%, ‘세대간 갈등’ 7.0% 순으로 나타남

<공동체 해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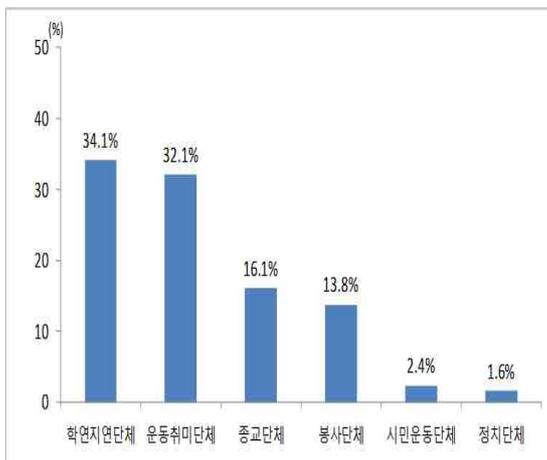
<공동체 해체 이유(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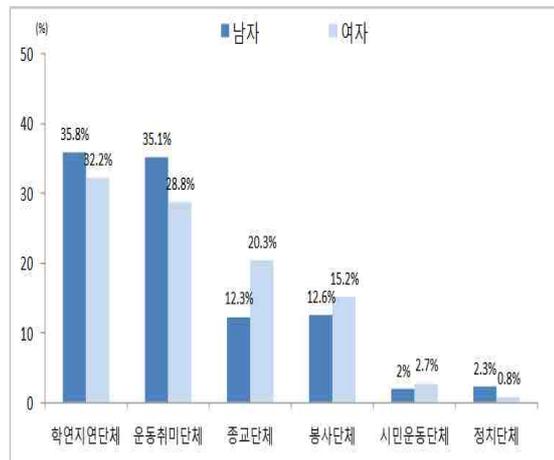
○ 사적인 친목 공동체 참여는 많지만, 공적 공동체 참여는 미흡

- 우리나라 국민의 공동체 참여는 사적이고 개별적인 친목 위주의 공동체 참여가 많은 편임
 - ‘귀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는’이라는 질문에 ‘동창회, 향우회 등 학교나 지역 관련 공동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음
 - 그 외에 ‘운동, 취미 등 친목 공동체’ 32.1%, ‘종교 관련 모임이나 단체’ 16.1%, ‘종교를 제외한 자원봉사 등 타인을 돕는 공동체’ 13.8%,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4%, ‘정당 등 정치단체’ 1.6% 순임
-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적인 공동체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어 공적 공동체 활성화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종교 관련 공동체를 제외하더라도 사적이고 친목 위주의 공동체인 학연지연단체, 운동 등 친목단체의 참여는 약 65% 정도임
 - 반면, 시민단체나 정당단체 등 공적 공동체 참여는 20%에도 미치지 못함
- (성별 비교) 여자보다 남자들의 사적이고 친목 위주 공동체 참여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나타남
 - 여자의 경우 사적 공동체 참여는 약 60% 정도이고 남자의 경우 7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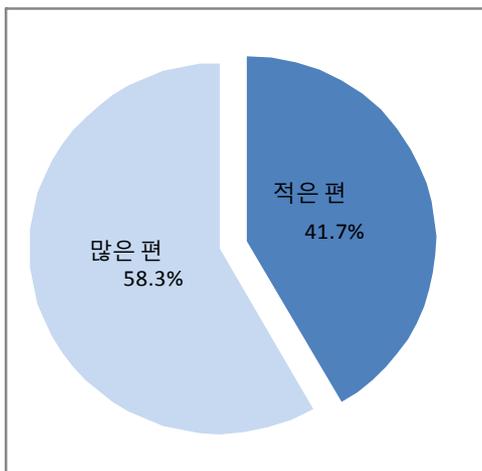
<참여 단체(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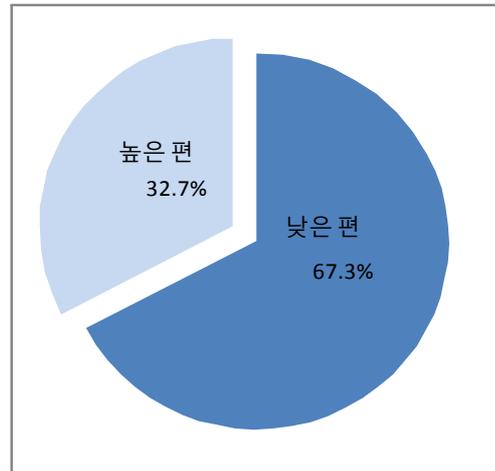
○ 타인의 어려움에는 무심하지만, 국가 위기에는 적극 참여

-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돕고 자하는 참여 행동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원보사나 기부 등의 타인을 돕는 행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낮은 편이라는 의견이 67.3%로, 높은 편이라는 의견 32.7%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반면, 국민 과반수 이상이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가 IMF와 같은 어려움에 또다시 처하면 국가를 위해 어떤 행동으로 참여할 생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편이라는 의견이 58.3%로 적은 편이라 의견 41.7%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따라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의 사적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령별 비교) 50대 이상이 국가 위기에 대한 참여 의지가 65.4%로 가장 강하고,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사적 도움에 대해서는 40대가 37.4%로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국가 위기에 도움 참여 수준>



<타인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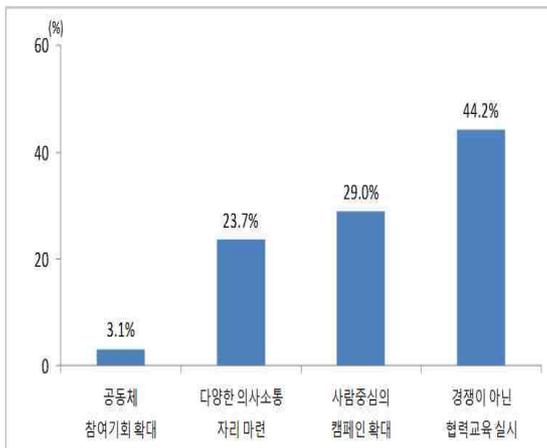


(3) 공동체 회복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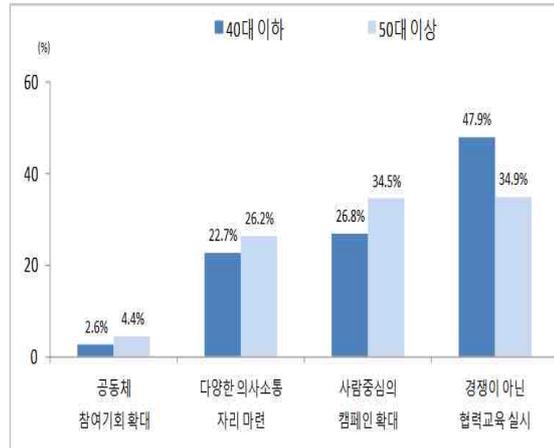
○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필요

-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은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실시’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물질이 아닌 사람 중심의 캠페인 실시’가 29.0%, ‘세대간, 집단간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자리 마련’이 23.7%, ‘다문화, 타종교 등의 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가 3.1% 순임
- 결국, 나를 둘러싼 타인들이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닌 같이 협력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사회의 공동체 회복이 앞당겨질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 비교) 50대 이상의 경우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과 사람 중심의 캠페인 실시가 35%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남
 - 40대 이하는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실시를 압도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동체 회복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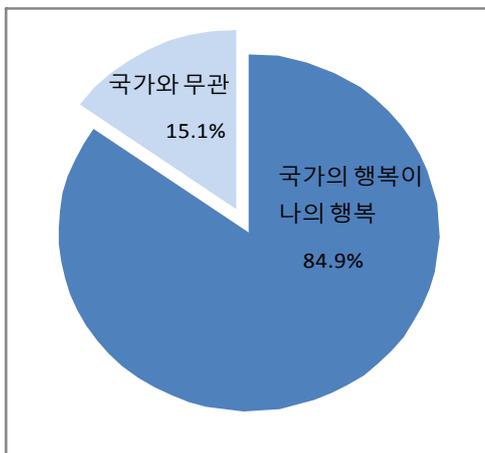
<공동체 회복 방안(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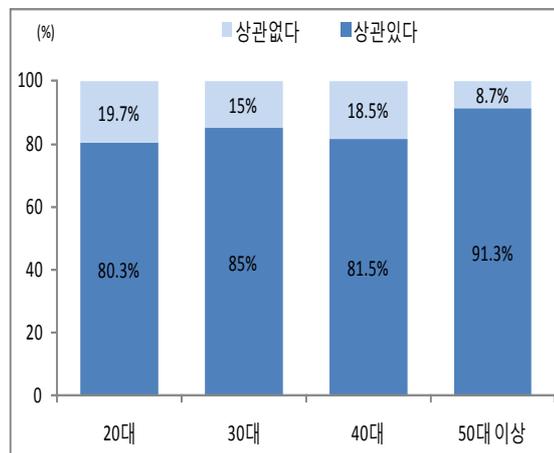
○ 국가가 잘살아야 나도 행복하다는 의견 84.9%

- 국민 10명 중 8명 이상(84.9%)은 국가가 잘살아야 나도 행복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국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편임
 - ‘국가가 잘 살아야 나도 행복하다’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4.9%로 ‘아니다’라고 응답한 1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 이런 인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위기에 적극 참여하려는 행동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됨
-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더라도 공동체의식은 쉽게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 비교)** 모든 세대가 80% 이상 국가가 잘살아야 나도 행복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91.3%가 국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 이상은 우리나라가 못살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나에 대해 몸으로 느꼈던 세대이므로 이런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강한 것으로 추정됨

<국가와 개인 행복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행복 간의 관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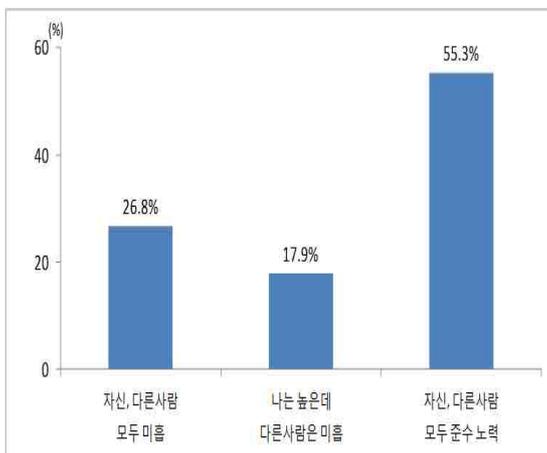
○ 과반이상이 준법정신 준수를 위해 노력

- 국민 과반수 이상이 준법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 ‘귀하는 대표적인 사회자본 요소 중 하나인 준법 정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준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응답이 55.3%임
 - 그 외에 ‘나는 준수할 생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아닌 것 같다’ 17.9%, ‘나나 다른 사람이나 모두 준수할 마음 자세를 갖추지 못한 것 같다’ 26.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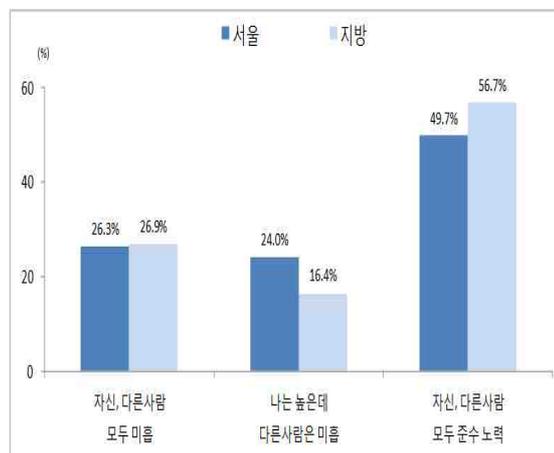
- 자신이 보기에 준법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도 공동체 회복에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현재 준법정신이 높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준법정신을 어기지 말아야겠다는 구속 효과도 줌으로써 공동체 의식 회복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비교) 서울(49.7%)보다는 지방 사람들이 모두 준수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56.7%로 높게 나타남
 - 서울의 경우 나는 높는데 다른 사람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24.0%로 지방의 16.4%보다 약간 높음

<준법의식 수준>



<준법의식 수준(지역별)>



3. 시사점

- 첫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경쟁이 아닌 협력 교육 실시가 필요
 - 나를 둘러싼 타인들이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아닌 같이 협력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 사회의 공동체 회복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임

- 둘째,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의 사적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잘 살아야 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 위기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높은 인식을 사적 공동체 차원으로 전이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공동체 내의 타인에 대한 자원 봉사나 기부 활동 역시 국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요한 수단임을 인식시키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도 도움이 됨

- 셋째, 준법정신 등 국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널리 홍보하는 프로그램 마련
 - 본 조사 결과 우리나라 과반 이상의 사람들은 준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높은 준법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를 통해 향후 자신이 준법정신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구속 효과도 줌으로써 공동체의 식 회복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함
 - 따라서 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캠페인 등이 필요함

장후석 연구위원(2072-6234, chahus@hri.co.kr)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2.1	2.7	3.4	3.7	3.0	3.9	3.6	3.6	
	민간소비(%)	1.9	1.7	2.1	2.1	2.2	2.0	2.5	1.5	2.5	
	건설투자(%)	-3.9	1.9	9.8	8.8	5.4	6.7	4.3	0.4	2.6	
	설비투자(%)	0.1	-12.7	-3.9	1.5	10.9	-1.5	7.3	7.9	5.4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508	105	208	238	248	799	151	241	790
		무역수지(억 \$)	283	56	144	108	133	441	52	151	455
	수출(억 \$)	증감률(%)	5,479	1,353	1,412	1,368	1,464	5,596	1,376	1,460	5,836
		증감률(%)	(-1.3)	(0.3)	(0.7)	(2.8)	(4.7)	(2.1)	(1.7)	(3.4)	(4.3)
	수입(억 \$)	증감률(%)	5,196	1,297	1,268	1,260	1,331	5,156	1,324	1,309	5,381
		증감률(%)	(-0.9)	(-2.9)	(-2.8)	(0.3)	(2.5)	(-0.8)	(2.0)	(3.3)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2.2	1.6	1.2	1.4	1.1	1.3	1.1	1.6	1.7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7	3.6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085	1,123	1,111	1,062	1,095	1,069	1,029	1,03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